

### 연말특집 ①

##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2년

#### ■ 2022년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 \_ 1분기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  
\_ 성/연령 및 이념과 무관하게 거의 비슷하게 기억
- \_ 2분기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와 ‘집무실, 용산 이전’  
\_ 2040세대, ‘거리두기 해제’ 기억, 60대이상 ‘청와대 개방’ 기억
- \_ 3분기 : ‘아베 피격 사망’, ‘윤 대통령 비속어’, ‘부동산 하락’  
\_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이념에 따라 기억 차이 커
- \_ 4분기 : ‘이태원 헬러윈 참사’와 ‘카타르 월드컵 개막’ 높아  
\_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세대와 이념별로 차이 뚜렷

#### ■ 2022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 \_ ‘이태원 참사’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 침공’, ‘윤 대통령 당선’ 순
- \_ 국민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 1분기와 4분기에 발생
- \_ 계층별로 기억나는 사건, 세대와 이념 따라 다소 달라

#### ■ 2022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_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비중 높아져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2월 2일(금) ~ 12월 4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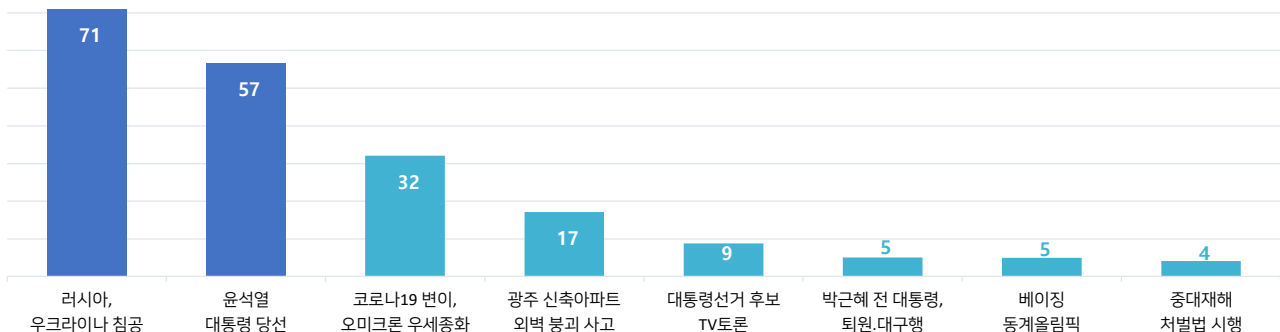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2022년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 1분기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

- 2022년 올해 1분기에 있었던 사건 중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71%)이고,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57%)으로 조사됨
  - 1분기(1~3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8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2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①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 ②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우세종화
    - 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④ 베이징 동계올림픽
    - ⑤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
    - ⑥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 ⑦ 윤석열 대통령 당선
    - ⑧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대구행
- 다음으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우세종화'(32%),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17%),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9%)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적은 응답을 기록한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4%)이고, 다음은 '베이징 동계올림픽'(5%)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대구행'(5%)이었음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2년 1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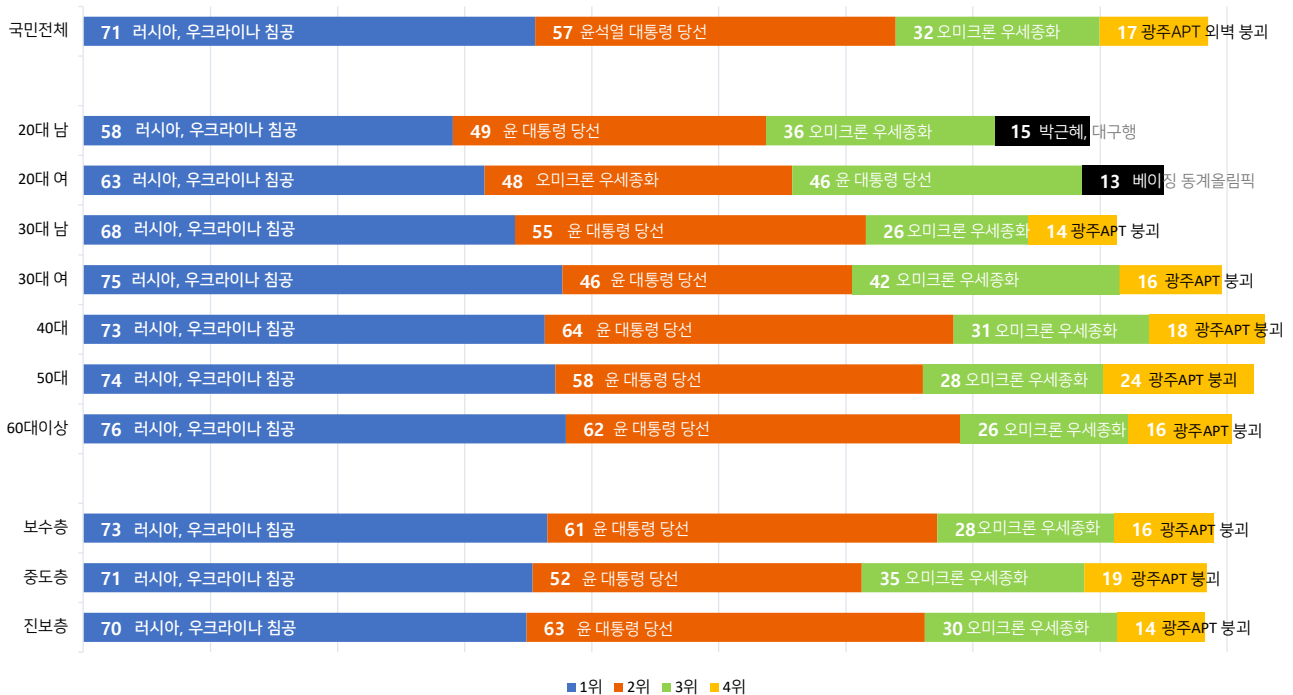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것은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음
  - : 국민들은 1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질문에, 71%라는 압도적 수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꼽음
  - :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세계경제 침체 흐름이 가속화되고, 지금도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2020년 1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83%)이었고,
  - : 2021년 1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60%)이었음
 (자료 : 케이스탯 리포트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0년』(2020년 12월 10일자) /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1년』(2021년 12월 9일자))
- ☑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당선'도 국민의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힘(57%)

## □ 성/연령 및 이념과 무관하게 거의 비슷하게 기억

- 1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연령과 이념층 모두 국민전체와 같은 의견임
  - 국민전체적으로 기억나는 사건 순위까지 동일함
- 20대는 국민전체와 응답이 일부 달랐으나, 그 차이는 적었음
  - 20대 남녀 모두 국민전체 4위(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와 다른 사건을 4위로 꼽았으나, 수치는 비슷함
  - 20대 남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대구행’(15%),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11%)
  - 20대 여자, ‘베이징 동계올림픽’(13%),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12%)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4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2년 1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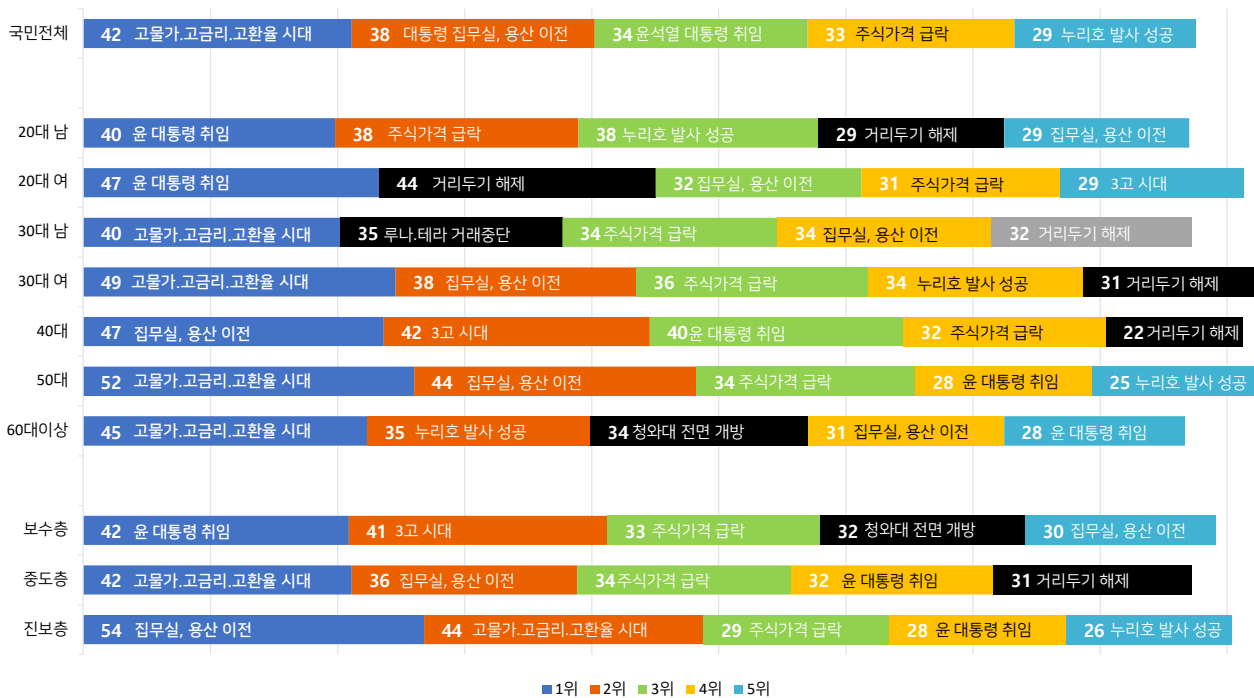
- ☑ 2022년 1분기는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로 국민적 관심은 온통 대통령 선거운동과 공약, 선거결과에 집중되었음
  -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젠다·이슈가 대통령 선거로 흡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일치해, 기억나는 사건도 비슷한 것으로 보임
  - : 대통령 선거 외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우세종화’는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진 계기로 국민의 기억에 각인되었고,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국민의 기억에 남게 된 것으로 보임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외적 사건이었지만,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충격과 국내외 경제에 미친 충격이 강력해 계층을 떠나 전 계층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먼 외국에서 벌어진 ‘남’의 일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고물가를 강제하는 등 ‘나의 일’로서 그 중요성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됨



## □ 2040세대 '거리두기 해제' 기억하고, 60대 이상 '청와대 개방' 기억

-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2분기는 다양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계층별로 기억하는 사건도 다름
- 먼저, 국민전체 상위 5위와 같은 사건을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은 계층은 50대와 진보층에 그침
- 다른 세대, 이념층은 국민전체와 같은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다른 사건을 꼽은 경우가 많았는데, 국민 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20대 남자, '실내마스크 착용 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대체)
  - 20대 여자, '실내마스크 착용 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누리호 발사 성공' 대체)
  - 30대 남자, '루나·테라 거래중단, 상장폐지', '거리두기 해제' ('윤 대통령 취임', '누리호 발사 성공' 대체)
  - 30대 여자, '실내마스크 착용 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윤 대통령 취임' 대체)
  - 40대, '실내마스크 착용 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누리호 발사 성공' 대체)
  - 60대 이상, '청와대 전면 개방' ('주식가격 급락' 대체)
  - 보수층, '청와대 전면 개방' ('누리호 발사 성공' 대체)
  - 중도층, '실내마스크 착용 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누리호 발사 성공'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2년 2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 Kstat Point

- ☑ 다양한 사건들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2040세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억하고, 60대 이상은 '청와대 전면 개방'을 기억하는 사건으로 꼽음
  - : 이는 윤 대통령 시대에 대한 관심 차이로 보이는데, 특히 30대 남녀는 '윤 대통령 취임'이 상위 5위에 들지 못함
- ☑ 한편, 30대 남자는 유일하게 '루나·테라 거래중단, 상장폐지'가 상위 5위에 속한 점이 주목됨
  - : 30대 남자들이 코인 거래와 이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권도형 대표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 □ 3분기 : '아베 피격 사망', '윤 대통령 비속어', '부동산 하락'

- 국민들이 3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은 것은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으로, 4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3분기(7~9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3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①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②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③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④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⑤ 권성동 원내대표, 윤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	⑥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결과 발표
⑦ 교육부 '만 5세 취학' 추진, 철회	⑧ 수도권·중부권 기록적 폭우
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출	⑩ '오징어게임' 미국 에미상 수상
⑪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⑫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⑬ 부동산 가격 하락	
- 다음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37%), '부동산 가격 하락'(35%), "'오징어게임' 미국 에미상 수상'(28%),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28%) 등이었음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8%)이고,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윤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11%), '교육부 '만 5세 취학' 추진, 철회'(11%) 등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2년 3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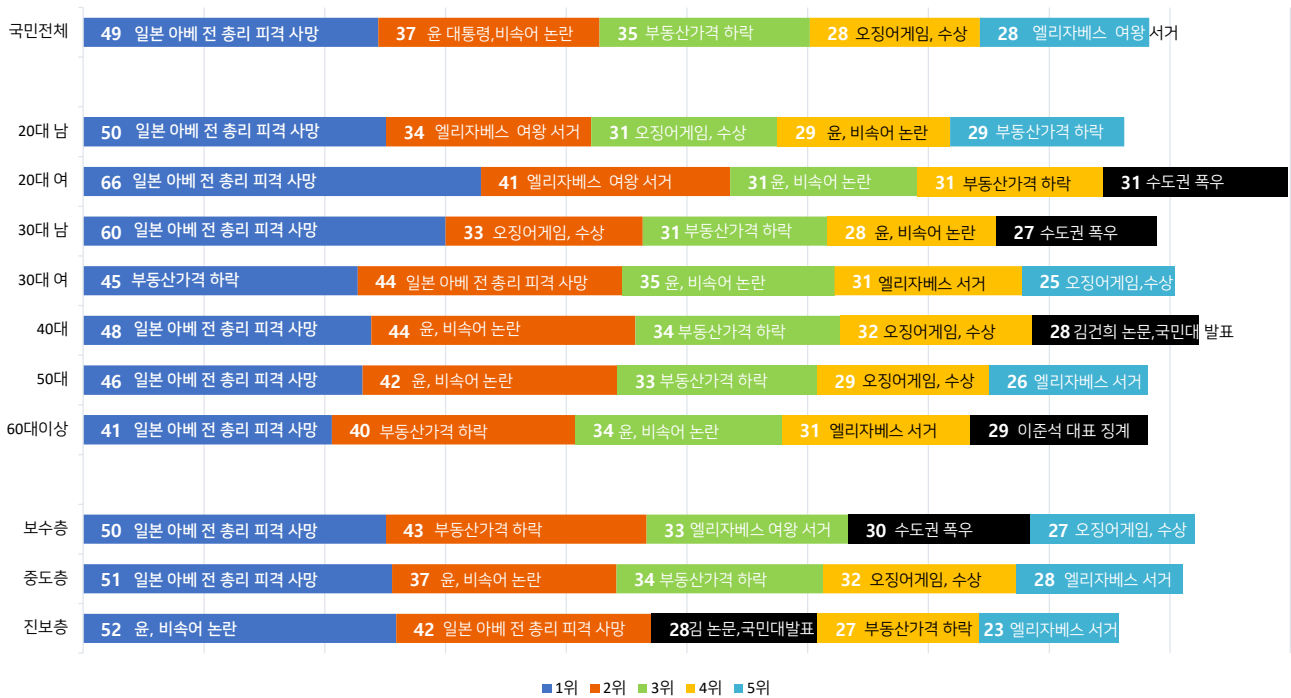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3분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사건들이 벌어졌고 언론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지만, 정작 국민들 기억에 비중있게 남아있는 정치적 사건은 많지 않음
  - :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은 2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들에게 회자된 사건이었음
  - : 그러나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를 비롯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권성동 원내대표, 윤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은 적은 비중을 차지함
- ☑ 정치권과 이를 다루는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관심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특히 가십성 보도(예, '권성동 원내대표, 윤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의 경우 이러한 괴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 경제위기와 관련된 이슈로 2분기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와 '주식가격 급락'이 상위권에 오를 데 이어, 3분기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상위권에 위치함
  - : 이들 사건 모두가 경기침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 ☑ 한편,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이 국민전체 1위에 오른 점은 특이함
  - :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꼽은 데는, 일본 우익을 상징하는 '아베'의 유명세와 '피격'이라는 의외성, 그리고 '통일교'와의 연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이념에 따라 기억 차이 커

- 3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높은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함
  - 다만, 30대 여성은 ‘부동산가격 하락’이 1위이고, 진보층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1위를 기록함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20대 여자, ‘수도권·중부권 기록적 폭우’ (‘오징어게임’ 미국 에미상 수상’ 대체)
  - 30대 남자, ‘수도권·중부권 기록적 폭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대체)
  - 40대,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결과 발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대체)
  - 60대 이상,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대체)
  - 보수층, ‘수도권·중부권 기록적 폭우’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 대체)
  - 진보층,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결과 발표” (‘오징어게임’ 미국 에미상 수상’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2년 3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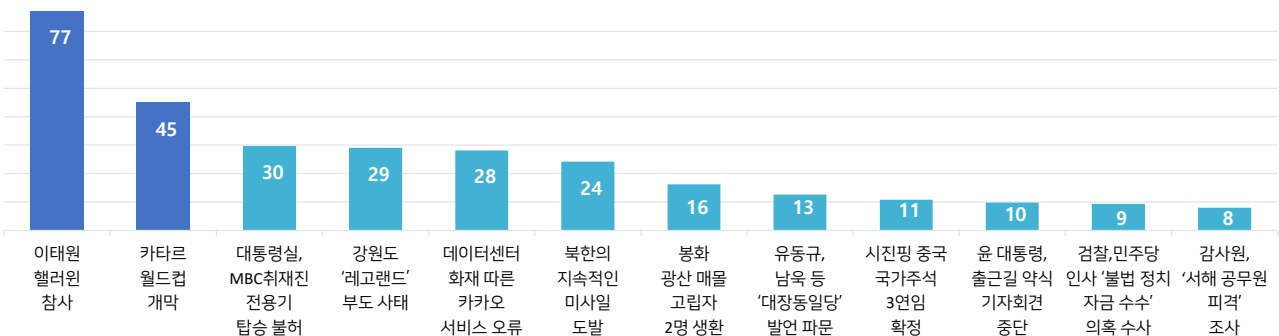
- ☑ 정치사건에 대한 보수층과 진보층이 기억하는 사건이 다른데, 이는 이념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됨
  - : 보수층의 경우 국민전체 2위로 꼽힌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상위 5위에 없음
  - : 이에 비해 진보층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1위임
  - : 또한 “김건희 논문 의혹, 국민대 결과 발표” 역시 보수층 상위 순위에는 없지만, 진보층에서는 3위임
- ☑ 한편, 거의 모든 계층에서 ‘오징어게임’ 미국 에미상 수상’이 상위권에 위치해, 작년에 시작된 ‘오징어게임’ 드라마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 4분기 : '이태원 헬러윈 참사'와 '카타르 월드컵 개막' 높아

- 4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이태원 헬러윈 참사'가 압도적으로 높았고(77%), 다음은 '카타르 월드컵 개막'(45%)으로 조사됨
  - 4분기(10~12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2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① 감사원, '서해 공무원피격' 조사
    - ②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 ③ 데이터센터 화재 따른 카카오 서비스 오류
    - ④ 검찰, 민주당 인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 ⑤ 강원도 '레고랜드' 부도 사태
    - 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 ⑦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 발언 파문
    - ⑧ 이태원 헬러윈 참사
    - ⑨ 봉화 광산 매물 고립자 2명 생환
    - ⑩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 ⑪ 카타르 월드컵 개막
    - ⑫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 다음은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30%), '강원도 '레고랜드' 부도 사태'(29%), '데이터센터 화재 따른 카카오 서비스 오류'(28%),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24%) 순이었음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감사원, '서해 공무원피격' 조사'(8%)이고, 다음은 '검찰, 민주당 인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9%),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10%) 등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2년 4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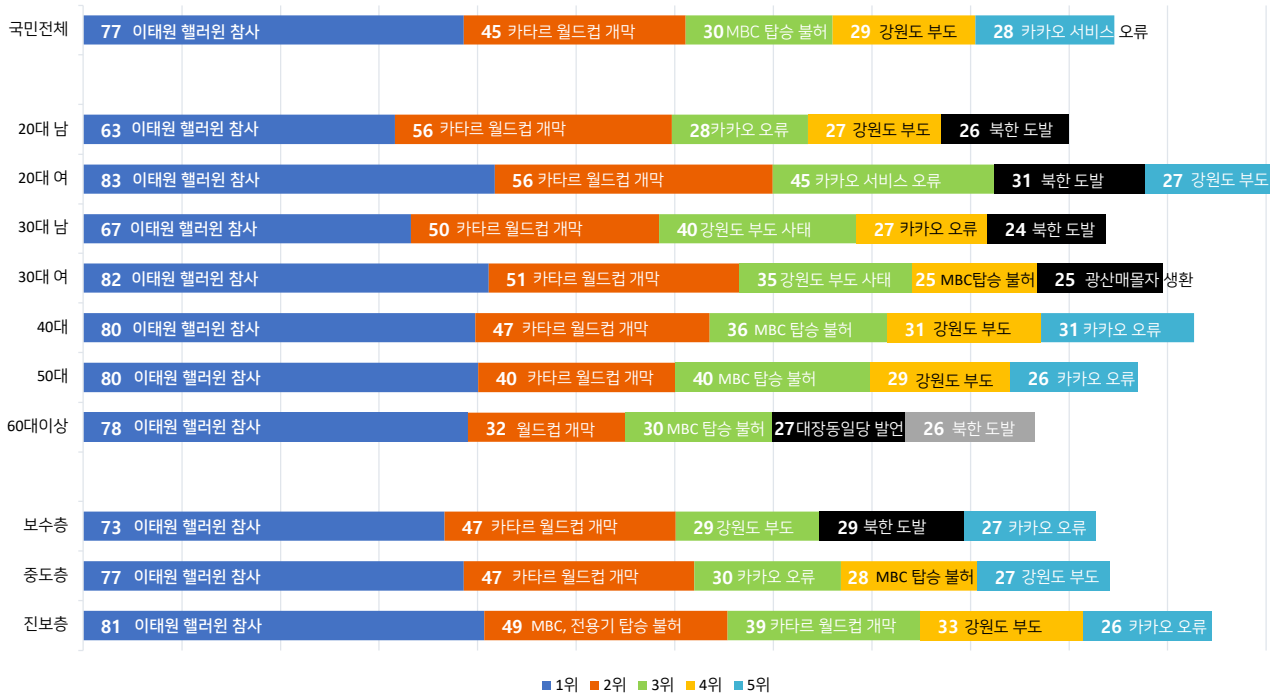
### Kstat Point

- ☑ 4분기 사건 중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헬러윈 참사'가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국민적 충격이 엄청난 사건임을 알 수 있음
- ☑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2위를 기록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투혼을 앞세운 16강 진출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으로 보임
- ☑ 4분기에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3분기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언론의 관심과 국민적 기억 간에는 적지 않는 간극이 존재함
  - :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는 국민전체 3위에 오를 정도로 기억되는 사건이지만, 그 외의 정치적 사건들은 모두 하위권에 위치함
  - : '감사원, '서해 공무원피격' 조사', '검찰, 민주당 인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 발언 파문' 등은 비중이 낮음
- ☑ 이에 비해 경제적 사건인 '강원도 '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4위에 올라 대비됨
  - :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경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상승하고, 정치 사건은 낮아진 것으로 보임

## □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세대와 이념별로 차이 뚜렷

- 4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이태원 헬러윈 참사'가 모든 계층에서 높은 비중으로 1위를 기록함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20대 남녀, 30대 남자,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대체)
  - 30대 여자, '봉화 광산 매물 고립자 2명 생활' ('데이터센터 화재 따른 카카오 서비스 오류' 대체)
  - 60대 이상,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 발언 파문', '북한 미사일 도발' ('강원도 부도', '카카오 오류' 대체)
  - 보수층,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2년 4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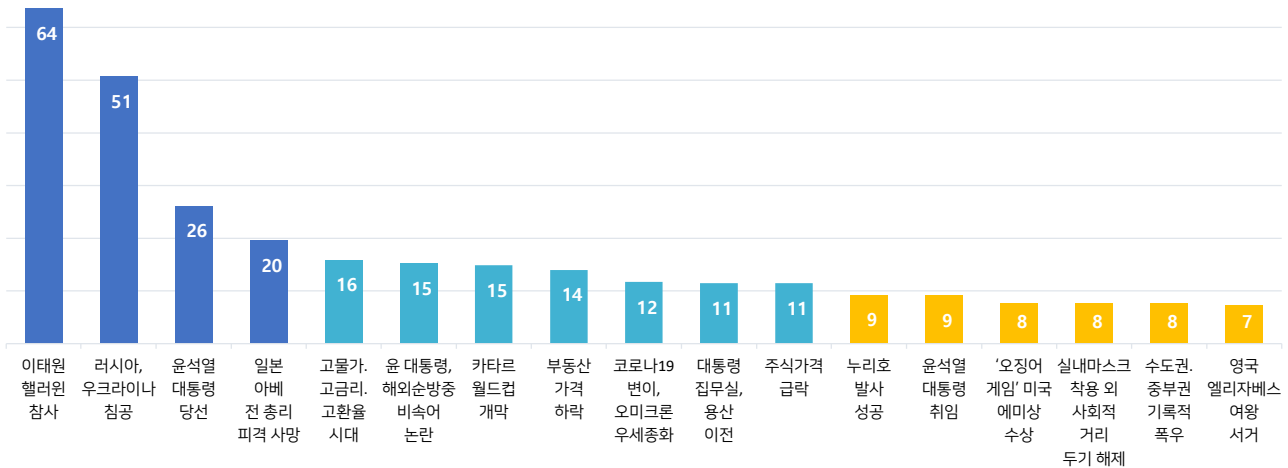
- ☑ 4분기 정치사건에서 국민전체 3위를 기록한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가 세대와 이념을 가르는 준거점이 되고 있음
  - : 20대 남녀, 30대 남자의 경우 이 사건이 상위권에 없고, 30대 여자와 4060세대에서는 상위권에 있음
  - : 또한 보수층에서는 상위권에 없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있음
  - : 세대적 차이는 정치 사건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로 읽히고, 이념 차이는 보수층이 애써 외면한 결과로 보임
- ☑ 한편, '강원도 '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사건으로 기록됨
  - :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모든 이념성향에서 상위권에 위치함

## 2022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 '이태원 참사'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 침공', '윤 대통령 당선' 순

- 2022년 전체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64%)로 나타남
  - 각각의 응답자가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을 모두 제시하고, 그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 4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다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51%), '윤석열 대통령 당선'(26%),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20%) 순으로 나타남
- 그 뒤를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16%),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15%), '카타르 월드컵 개막'(15%), '부동산 가격 하락'(14%),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우세종화'(12%),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11%), '주식가격 급락'(11%), '누리호 발사 성공'(9%), '윤석열 대통령 취임'(9%), '오징어 게임' 미국 예미상 수상'(8%), '실내마스크 착용 외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8%), '수도권 중부권 기록적 폭우'(8%),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7%) 등임

2022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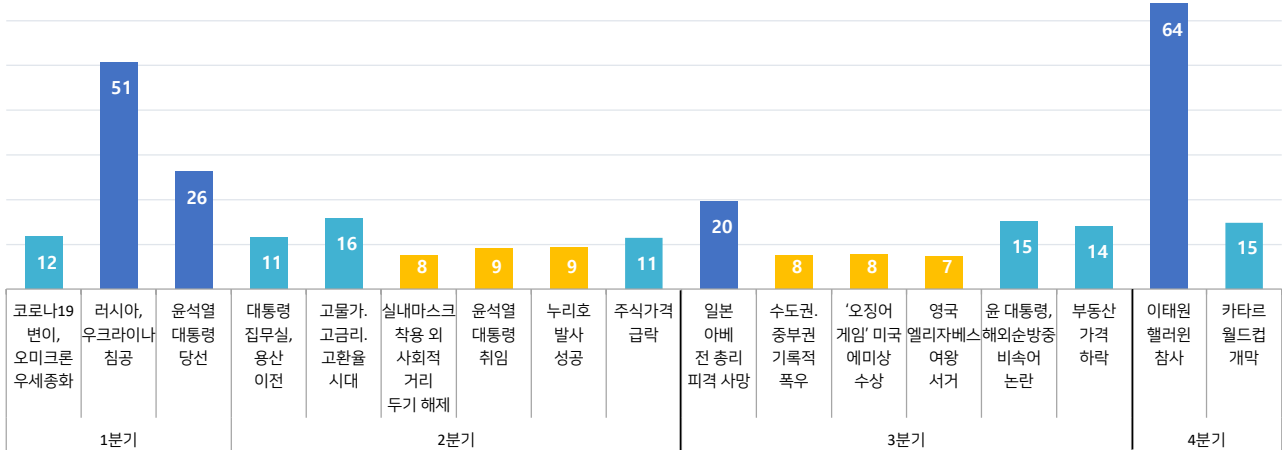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우리 국민이 2022년 올 한해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은 것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 참변이 국민기억에 선명히 각인된 것으로 보임
  - :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국민적 기억속에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매우 높은 수치로 2위를 기록했는데, 전쟁의 참상과 더불어 경제적 파장이 개인에게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상위 17위까지의 사건 중 정치 사건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들로,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음
  - : 사건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떠나,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는 파급력이 매우 큼
- ☑ 한편, 올해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변하는 사건들은 모두 상위 17위에 위치해 있음
  -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주식가격 급락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임

## □ 국민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 1분기와 4분기에 발생

- 국민들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2022년 시기별로 재정렬한 결과, 횡수로는 2분기와 3분기에 많은 사건이 발생함
  - 앞서의 2022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시간 순서별로 재정렬한 결과임
- 하지만, 국민적 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은 1분기와 4분기에 발생함
  - 1분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있었고, 4분기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함
- 3분기에도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기억됨

2022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 시기별 재정렬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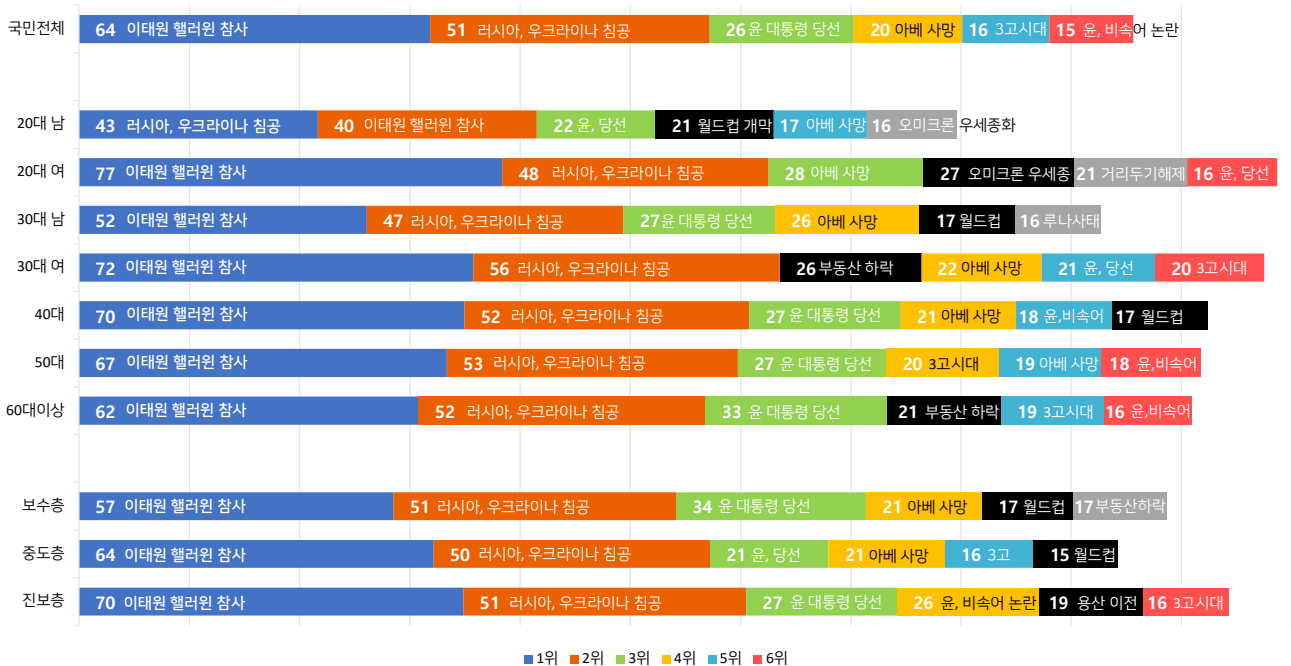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2022년에 대한 국민기억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먼저 2022년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했지만 위험도는 급격히 낮아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상황속에서 시작됨
  - : 곧이어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1분기가 마감됨
- ☑ 2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이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할 정도로 코로나 위험성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
  - :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했지만, 주식가격 급락으로 경제적 시름이 깊어지면서 2분기가 종료됨
- ☑ 3분기는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이라는 충격적 소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수도권·중부권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
  - :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을 수상한 것에 환호하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에 경건한 마음을 갖기도 함
  - : 이때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전 국민적 화제가 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 본격화로 3분기가 끝남
- ☑ 4분기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로 인한 국민적 슬픔이 깊었으며,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이 국민적 위안이 되면서 마무리됨

## □ 계층별로 기억나는 사건, 세대와 이념 따라 다소 달라

- 2022년 전체 사건 중 커다란 기억은 계층별로도 같음
  - 모든 계층에서 '이태원 헬러윈 참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1위 또는 2위를 기록함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막대와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6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20대 남자, '월드컵 개막', '오미크론 우세종화' ('3고 시대 개막'과 '윤, 비속어 논란' 대체)
  - 20대 여자, '오미크론 우세종화', '거리두기 해제' ('3고 시대 개막'과 '윤, 비속어 논란' 대체)
  - 30대 남자, '카타르 월드컵 개막', '루나 사태' ('3고 시대 개막'과 '윤, 비속어 논란' 대체)
  - 30대 여자, '부동산가격 하락' ('윤, 비속어 논란' 대체)
  - 40대, '카타르 월드컵 개막' ('3고 시대 개막' 대체)
  - 60대 이상, '부동산가격 하락' ('아베 사망' 대체)
  - 보수층, '카타르 월드컵 개막', '부동산가격 하락' ('3고 시대 개막'과 '윤, 비속어 논란' 대체)
  - 중도층, '카타르 월드컵 개막' ('윤, 비속어 논란' 대체)
  - 진보층, '대통령실 용산 이전' ('아베 사망' 대체)

2022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2.12.04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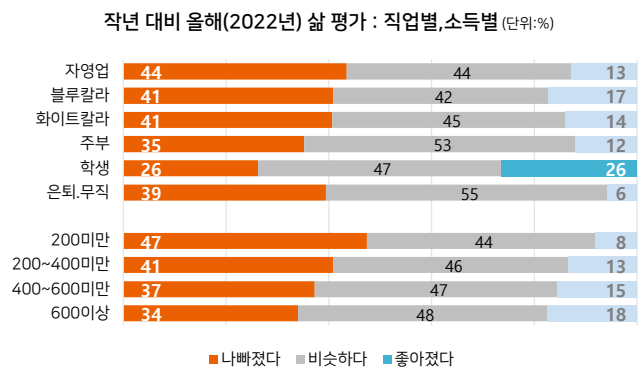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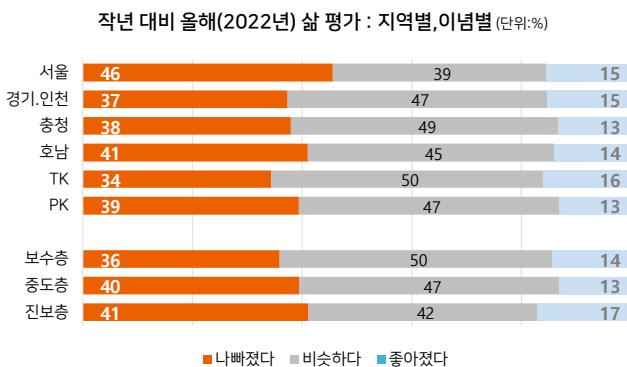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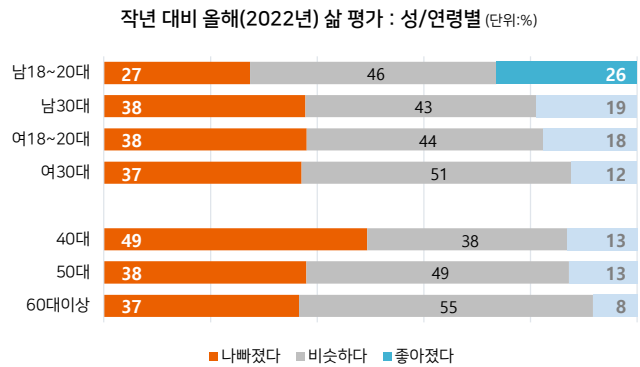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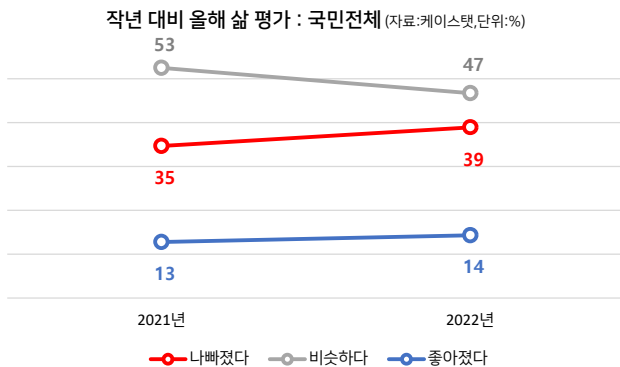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세대와 이념에 따라 그 기억의 강도가 다름
  - : 2030세대에서는 상위 6위에 없지만, 4060세대에서는 포함되어 있음
  - : 이념별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상위 6위에 없는데 비해 진보층에서는 있음
  - : 세대 간 차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차이 때문이고, 이념 차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태도 차이 때문으로 보임
- ☑ 한편, 이태원 헬러윈 참사는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으로 보임
  - : 그만큼 이태원 헬러윈 참사와 관련된 이슈는 정치·사회적으로 계속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비중 높아져

- 우리 국민들은 올 한 해의 삶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47%), '나빠졌다' 39% vs '좋아졌다' 14%로 나타남
  -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선생님의 삶이 작년(2021년)보다 좋아지셨어요, 나빠지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작년의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비슷하다'는 비중이 낮아지고, '나빠졌다'는 비중이 상승함
  - '좋아졌다'는 비중은 거의 유사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우세함
  - 남자 18~20대만 '나빠졌다'와 '좋아졌다'는 의견이 비슷함
- '나빠졌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40대 △서울 △진보층 △자영업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Kstat Point

- ☑ 2022년을 돌아보는 우리 국민들은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의견이 많아짐
  - ： 특히 40대와 서울지역, 그리고 자영업자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임
  - ：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아져,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판단됨
- ☑ 2022년의 마지막을 향할수록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6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5호는 『속담.명언.유행어 등에 대한 국민생각』이라는 주제로 12월 22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12월 사회지표는 12월 1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